주일 예배 2026 년 11 월 15 일 오후 1 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즐겁게 안식할 날 / 찬송가 43(신) 57(구)

성시교독 / 성시교독문 82 번 (빌립보서 2 장)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찬송가 589(신) 308(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에베소서 2 장 10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온유한 주님의 음성 / 찬송가 529(신) 31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수께서 오실 때에 1,2 절 / 찬송가 564(신) 299(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과 적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불편한 관계에서도 친절을 잃지 않으며,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 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의 나라가 보입니다

렘 33:1-3

유다 나라가 무너져 가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라의 멸망과 절망적인 현실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나라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계획이 어긋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성공이나 세상의 안정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친히 완성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절망스럽게만 보이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 명 샘 소 식

1. 2026 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3. 2026 년 11 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4. 11 월 22 일 다음 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5. 11 월 29 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6. 12 월 1 일 화요일 저녁 8 시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7. 건강 회복 중에 계신 강영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8. 김종원(윤하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1 월 예 배 위 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준기(1)	한광기(8)	최명희(15)	최상천(22)	조은영(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3 시	월요일 저녁 7 시 30 분	금요일 저녁 8 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